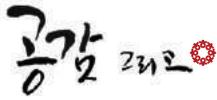


공감 크리크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34 Autumn 2019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34 Autumn 2019



신대준 작가 <길 없는 숲>(2018)

둘만이 허락된 비밀의 숲,
그곳에서 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너와 마주한다.
서로를 품어주며 건네는 위로와 안식이
언제까지나 영원하길 바라는 까닭은
누구에게나 그러한 경험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통권 34호 정기간행물(부산남 바00007) ISSN 2586-1077

등록일 2011. 6. 23. 발행일 2019. 9. 10.

담당부서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 051-744-7707 www.bscf.or.kr

편집위원 문진우 신용철 심창신 양화니 이연승 이재희 홍동식

편집기획 조형수 박슬기

디자인 및 제작 효민디앤피 051-807-5100

- 04 **여는글**
문화를 위한 문화는 없다



공감의 뱃고동

- 08 **Space**
'인문학당 달리'와 '달리 미술관'
- 14 **Harmony**
아재 문화, '참여'로의 항해를 시작하다
- 20 **Issue**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법제화
- 26 **People**
서상호 바다미술제 전시감독



공감기부

- 34 갯 스물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돌아와요 부산항아

- 42 **니, 그거 아냐?**
한국 신발의 중심, 세계 신발의 중심
- 46 **누꼬?**
화려한 성공 화려한 실패, 자명 김지태
- 52 **거 가봤나?**
기차길 따라 웅기종기, 무지개 희망마을



그리고 재단

- 60 **듣기**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
- 64 **말하기**
예술기행 프로젝트
- 68 **보기**
주요행사

어느날

문화를 위한

글. 이연승_문화기획자, 본지 편집위원

문화는 없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

문화는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개인이나 집단이 자연스러운 것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 광범위한 물질과 감정에 대한 이해마저 자연스러운 것으로 축적되어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그토록 원했던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에서 벗어나 한없이 넘쳐나는 우리의 일부가 되었다. 문화는 이제 우리를 가지고 울리고 웃기기를 반복한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흥미로운 청원이 올라왔다. 일반음식점에서의 춤을 허용해달라는 것이었다. 현행법상 음향장비를 갖추고 춤을 추는 주점은 유흥주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청원의 논리를 살펴보면 음악과 행위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고, 춤은 유흥업소를 다니는 사람이나 무대가 주어진 예술가만 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춤이 허용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법안도 함께 내어달라고 당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광주의 모 클럽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 많은 사상자를 냈다. 언론은 구조물 증축의 안정성과 불법 여부보다는 춤추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특혜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구조물이 무너졌는데 춤과 일반음식점의 관계가 문제가 되니 춤이 참 머쓱해지는 순간이었다.

여기서 개별 문화 중 무엇이 잘 못 되었는가에 대해 따져보고자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각각의 문화는 밀접한 관련을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전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실용적인 건축, 음식의 맛과 분위기, 음악과 춤이 모두 문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춤추는 일반음식점은 없다. 춤을 허용

하는 일반음식점은 있다. 그러나 객석에서만 춤 허용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를 위한 문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

문화는 파급력을 쌓아가며 우리의 일상에 들어온다. 그만큼 문화는 그 대상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대상에 대한 일반적 판단에 따라 오직 규제로만 선긋기 할 수는 없다. 자연을 살린다는 이유로 도시의 콘크리트를 다 걷어내고 보행을 제한할 수 없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문화가 있기 마련이다. 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산물 그리고 정신과 육체가 어디에서든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도 자연처럼 축적과 진화를 거듭할 수 있다. 문화는 인조자연이다.

<공감 그리고>는 그러한 다양한 문화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동안 '문화다양성' 코너를 통해 여성, 유아, 청소년을 다뤘고, 이번호에서는 아재 문화의 원천을 찾아가듯 중년 남성의 문화를 이야기한다. 그 외의 코너에서도 정책과 축제의 변화에 대해 최대한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했다. 또한 지역 문화의 역사를 찾아가는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항상 깊은 감성을 제공한다.

매호 이루어지는 편집회의가 지역 문화와 관련된 국민청원을 대신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며 가을호를 열어보았다. 내 자신이 각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경청하는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지지를 많이 받을 만한 지면을 구성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결론이 잘 안 나는 편집위원들의 청원을 항상 잘 정리해주는 재단 기획홍보팀과 집필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공간의 바깥과 안쪽

- 008** **Space** | 원도심 영주동 산마루에 자리 잡은 '달을 품은 물 향아리'
'인문학당 달리'와 '달리 미술관'
- 014** **Harmony** | 아재 문화, '참여'로의 향해를 시작하다
- 020** **Issue**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법제화, 데이터가 변화시킬 공연 생태계
- 026** **People** | 다 함께 고민하는 부산 바다를 위해, 서상호 바다미술제 전시감독



‘인문학당 달리’는

물질만능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잊혀 가는 인간 본연의 의미와

삶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그 답을 인문학에서 찾아보고자

마련한 공간이다.

DALI

달리미술관

DALI



원도심 영주동 산마루에 자리 잡은 ‘달을 품은 물 향아리’

‘인문학당 달리’와 ‘달리 미술관’

글. 박선정 인문학당 달리 소장, 영문학 박사, 부산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부산의 중심인 중구에서 민주공원 쪽을 올라다보면 굽이 굽이 산복도로가 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이 수많은 골짜기처럼 펼쳐져 있기도 하다. 부산역에서 43번을 타고 구불구불 오르거나, 부전시장에서 86번 버스를 타고 왼편 바닥에 깔리는 부산항을 내려다보면서 달리거나, 그도 아니면 부산터널 위로 나 있는 계단을 따라 옛 추억을 더듬어 뚜벅뚜벅 오르노라면 우뚝 솟은 동아아파트가 나타난다. 나지막하게 깔린 낮은 주택들을 내려다보는 그 어색한 고층 건물 맞은편에 파랑과 보라로 단장한 2층짜리 건물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띈다. 겉보기엔 2층이지만 내려가는 계단 옆에 숨은 1층이 있어서 실은 3층짜리 건물이다. ‘인문학당 달리’와 ‘달리 미술관’(대표 이행봉)이다.



항아리 안에 한 방울씩 채우는 인문학

‘인문학당 달리’는 물질만능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잊혀 가는 인간 본연의 의미와 삶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그 답을 인문학에서 찾아보고자 마련한 공간이다. 문사철을 망라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데 모여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과정과 성과를 지역의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달리’는 인문학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토대이자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진정한 실용학문이라 믿는다. 그 믿음을 현실로 옮기고자 올해 초 1월에 문을 열었다. 왜 이름이 ‘달리’일까. 누구는 ‘살바도르 달리’를 떠올리고 누구는 ‘달리 보고, 달리 느끼고, 달리 생각하면서, 달리 사는 삶’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달동네에 있어서 달리인가 할 수도 있겠다. 진지한 분이라면 혹시 <월인천강지곡>을 연상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해주신다면 참말 고마운 일이다. 말 그대로 각자가 ‘달리’ 해석을 해주시니 그것만큼 이 이름에 걸맞은 일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굳이 우리 의도를 말씀드리자면, ‘달리’는 ‘달을 품은 물 항아리’의 처음과 끝을 따서 붙인 이름이다. 하늘의 달은 되지 못해도 달을 비추는 물 항아리는 되어보자는 뜻이다. ‘달리’가 항아리라면 물은 인문학이 될 것이다. 어렵사리 항아리는 마련했다. 이제 우리가 부산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은 그 항아리에 인문학이라는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대번에 다 채울 것이라 여기지는 않는다. 한 방울 한 방울 차근차근 산복도로 계단 오르듯이 시작할 것이다. 이 한 방울들은 이렇다. 부산인재교육진흥원 주관으로 ‘부모 인문학 강좌’를 매주 열었다. 중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대상



» 인문학당 달리

‘만들기를 통한 인문학 수업’도 차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자체 행사로는 매월 북 토크 및 인문학 특강을 개최하고 있으며, 소규모 고전 읽기 모임도 갖고 있다. ‘안익태 케이스’를 통해 애국가의 기원을 살폈고, 한국 산사의 단청세계도 연구했다. 조지 오웰의 《1984》를 현재의 중앙아시아와 연관 지어 ‘감시와 유목’이라는 주제로 탐구하기도 했다. 단테의 《신곡》 강독을 꾸준히 해오고 있기도 하다. 이런 경험을 살려 하반기에는 더 다양한 인문강좌를 기획 중이다. 나아가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문학 강좌와 독서모임 등도 꾸릴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역 청소년 인문학 강좌를 만들어내는 일만큼은 꼭 해내고 싶다.

공간이 작품이 되는 동네 미술관

여기까지는 3층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이제 1층 얘기를 하려 한다. 영주동 계단을 올라보신 분은 알겠지만, 계단 옆으로 가정집들이 붙어 있다. 그 가운데 우리 달리 건물이 있다. 그 중에서도 1층은 별도 잘 들지 않고 늘 축축한 공간이지만 두 가구가 40년 넘게 살림을 살았다고 한다. 공리 끝에 여기를 미술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곳이 담고 있는 부산 근현대사의 흔적을 보존하고 싶었다. 벽을 트고 확장하면서도 원래 공간 구조를 살리는 공사를 벌였다. 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간 자체가 멋진 작품이라 감히 자부한다. 지난 7월에 개관한 그 이름 ‘달리 미술관’이다.

첫 전시회는 미술관의 특징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달동네 작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엄경근’ 작가와 엄 작가의 스승인 ‘김진희’ 작가가 함께하는 ‘사생연’으로 첫 전시회를 열었다. 모든 처음이 그렇듯 무척이나 초조했다. 우선은 얼마나 찾아오시려나 싶어서다. ‘달리 미술관’이라는 문패부터가 버스 정류소 옆 계단으로 내려와야만 보인다. 건물과 계단 사이에 폭 파묻혀 있다. 그래도 ‘여기가 이곳에서는 나름 중심이 되는 계단이니가 유동인구는 좀 있을 거야’라면서 위안 삼았다. 그렇더라도

» 창 너머로 훤히 내다보이는 부산 풍경

» 달리 미술관으로 가는 입구





» 달리 미술관 전시 작품



» 달리 미술관 내부

동네 분들이 여기에 들어올까 하는 불안감을 떨치기는 힘들었다.

멀리서 시간 내어 찾아주신 분들 덕분에 기분은 했다. 더 큰 성과는 여기가 동네 미술관이 될 가능성을 본 것이다. “내 칠십 평생에 미술관에 들어와본 건 처음이다.”라며 어색해 하시는 동네 어르신, “우리 동네에도 미술관 생겼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친구들 데려와도 돼요?” 마냥 신이 난 동네 초딩들. 이들이야말로 ‘달리’가 이곳에 미술관을 차린 데 가장 큰 의미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방울을 향아리에 보탤다.

부산에 꼭 필요한 예술의 터전이기를

예술이 먼 곳에 있는 것도, 특별한 누군가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면, 평생을 이곳 계단을 오르내린 어르신들에게,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은 젊은이들에게,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달리 미술관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 예술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술을 보고 느낀 아이들이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도, 예술 애호가가가 될 수도 있으리라. 하다못해 미술관 나들이가 취미인 사람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예술에서 다소 소외된 공간에서 전시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작가들이 있을 것이다. ‘달리’는 그런 분들이 맘껏 이용하는 공간이기를 바란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젊은 작가들의 전시공간으로도 한몫하고 싶다. 아랫동네 사람들이 여기 윗동네를 찾아오고 윗동네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동네 미술관’이기를 바란다. 1층 예술과 3층 인문학이 자유로이 넘나들기를 진심으로 소원한다.

‘달리’가 꾸는 소박한 꿈으로 마무리하련다. 지금은 1층과 3층이 외롭게 동떨어져 있다. 우리 힘이 모자란 탓이다. 빠른 시간 안에 1층과 3층이, 인문학과 예술이 거침없이 넘나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달리’가 외딴 ‘산만디’에 꼭 필요한 곳이기를, 나아가 지역주민들에게 부산에 반드시 있어야 할 큼직한 향아리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가 쏟는 한 방울 한 방울에 여러분의 한 방울씩을 보태주시면 고마운 일일 것이다.



아재 문화, '참여'로의 항해를 시작하다

글. 유현웅 마술사, 모두의 요트 대표

항도 부산 해운대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
하얀 돛을 마스트에 최대한 끌어올리고
바람을 안고 달려 나가는 하얀 요트.
그림이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
그런 장면을 매일 연출하는 일상을 영위하는
저는 부산의 요트맨이자 마술사 캡틴 유입니다.

아재도 꿈을 꾸다

10년 전만 해도 저는 일상의 쳇바퀴에서 헤어날 수 없고 하루하루 똑같은 나날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일과 후나 휴일에는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어울려 술 한 잔으로 노동의 시름을 달래거나 노래방을 전전했죠. 취미 활동이라고는 고작 등산이나 조기축구회 활동, 좀 여유가 생기면 스포츠 경기 관람을 하거나 영화관, 작품전시회에 들르는 정도의 문화 생활을 하는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중년 남성, '아재'였습니다.

'아재'란 단어가 대중문화의 중심 키워드로 등장한 것은 3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의 중년 남성이 '아재'라는 친근감 있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재개그, 아재파탈이니 '아재'란 말이 붙은 다양한 신조어도 나오면서 아재는 미디어의 파급력을 통해 하나의 문화 경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꿈은 있고 늘 꿈을 꾸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40~50대 중년, 특히 '아재'들은 아예 꿈을 접고 사는 것이 현실이지요. 더구나 일상에 바쁜 중년들에게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생활은 '언감생심' 거의 즐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무상하게 흘러가는 세월의 절박함에 한때 꾸었던 꿈을 되새겨보지만 사회의 역군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다시금 가슴 한 켠에 고이 묻어만 할 때가 많습니다.



▶ 부산국제영화제 미술 공연 당시



» 부산 요트의 성지, 해운대 마린시티

요트는 내 운명

저는 젊었을 때부터 중년 후반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뭔가 시도해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이 떨릴 때 뭐든 해야지, 다리가 떨리면 말짱 ‘황’이니 지금 해야 한다!”라고. 그러다 남은 인생 동안 뭔가 색다르고 재미있는 나만의 특색 있는 문화 만들기에 늦게나마 돌입하기로 결심했죠.

다양한 문화생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영상 만들기, 록클라이밍, 수중다이빙, 루어낚시, 골프, 볼링 등을 비롯해 행글라이더, 익스트림 스포츠, 초기 드론이나 3D프린트 등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술한 시행착오 끝에 무엇 하나 오래가지 못하고 다 접은 어느 날, 저는 드디어 운명과 조우했습니다. 모 방송에서 요트로 세계 일주한 윤태근 선장의 다큐 방송을 접하고 “이거다!”라며 무릎을 탁 치고서는 요트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정박해 있는 멋진 요트를 보며 요트를 타기로 마음을 굳히고 동호회를 가입하고 나서 바로 주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론을 독학으로 익힌 후, 첫 항해에 나선 그날의 감동은 지금도 가슴을 뛰게 합니다. 안전교육을 받은 후 요트에 시동을 걸고 먼 바다에 나갔습니다. 윈치를 당겨 마스트 끝까지 세일을 올린 후 엔진을 끄고 바람을 안고 달리는 그 순간의 경쾌함, 낚전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과 뱃전을 울리는 파도의 철썩거림, 때마침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7080올드팝, 그 모든 감각들이 모여 무아지경에 빠질 때의 감동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 서면에 있는 공간 '아지트'에서의 모임

한·일 고대항로 탐사단 결성

그 이후로 요트는 제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틈나는 대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서적을 탐독했으며 요트 용품을 사들이는 등 요트를 즐긴 지 그렇게 1년. 요트 면허를 취득한 후 급기야 지인들과 공동으로 중고 요트를 구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트를 구입하고 나서는 아예 항해술을 배워 근처 섬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요트 인생 5년차인 2014년에는 한·일 고대항로 탐사단을 만들었습니다. 3세기경 고대 선조들의 일본 본토 진출의 시발점이 된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항해한 '전나무로 만든 통나무배'가 고증을 통해 복원된 시점이었습니다. 일본 역사학자, 부산 해양대 학생들, 자원봉사자들로 요트 선단을 구성하여 통나무배의 항해를 안전하게 해상에서 호위했습니다.

부산에서 일본 대마도까지 현해탄을 건너는, 장장 16시간의 역사적인 항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격년제로 고대항로 탐사를 계속 진행하는 실험고고학적 성과로 언론에 소개되었고, 이에 탄력을 받아 다양한 요트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요트 선상에서의 음악 연주회, 다양한 동호회 모임, 포트럭파티, 이색 요트 항해 등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요트를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단체, 다문화가정, 노인대학 등에서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즐기는 요트'로 요트 문화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기

해질녘에 트럼펫과 기타 연주를 들으며 낭만적인 밤을 맞이하는 이 놀라운 일상의 변화는 어쩌면 다양한 놀이문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년의 놀이문화는 관전하는 것보다는 참여하는 쪽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동네마다 있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도 중요하지만 중년의 참여를 유도하는 문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합니다. 여기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아재'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따르지 못하면 중년의 문화생활은 나아질 리 만무하고 답보 상태로 가는 것은 뻔한 일이겠지요.

무료하고 불안한 노후를 앞둔 아재들이여 반복되는 일상의 루틴에서 계속 머뭇거리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 가슴 떨리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과감히 시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개인적인 문화생활은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법제화



데이터가 변화시킬 공연 생태계

글. 변계훈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략기획실 정보분석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사업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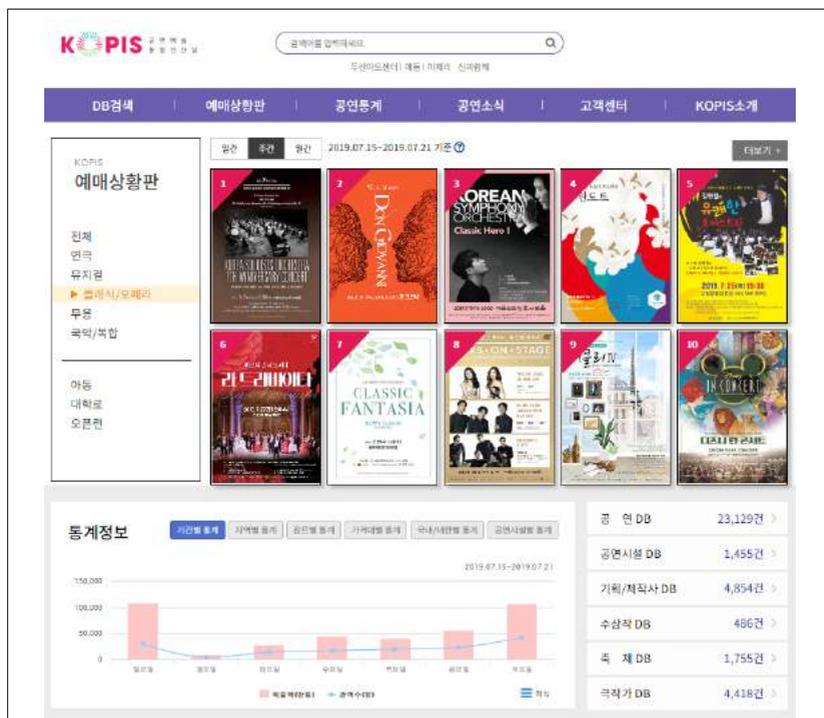
지난 6월 25일부터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공연법에는 공연 기획/제작자, 공연장 운영자, 공연 입장권 판매(수탁)자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공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화에 대한 주요 내용과 함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 본 궤도에 올랐을 때 공연 생태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정확한 공연시장 규모 파악을 위한 정보·통계 시스템 도입

2011년 공연 제작이 활발해지고 공연시장이 커지자 정확한 시장 규모와 현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연통계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으로부터 나왔다. 이에 정확한 공연정보와 통계 제공을 위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전산망)을 구축하여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공연전산망은 공연과 관련된 정보, 통계, 예매상황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사이트(www.kopis.or.kr)



공연전산망 제공 서비스

구분		세부항목
DB	공연	공연기간/장소, 장르, 관람시간/연령, 티켓가격, 출연진/원작자/제작진, 기획제작사, 줄거리 등
	공연단체	주요 장르, 홈페이지, 전화번호, 단체특성, 공연이력 등
	공연시설	시설특성, 지역, 개관연도, 공연장수, 객석수, 관련공연 등
예매상황판		기간, 장르, 특성 등 조건에 따른 예매 중인 공연정보
공연통계		종합, 기간, 지역, 장르, 가격대, 국내/내한, 공연시설별 통계

*웹·모바일 사이트(www.kopis.or.kr) 통해 정보 조회, 검색 등 서비스 제공

데이터 수집 한계와 법제화의 필요

공연전산망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공연전산망은 공연 입장권의 전산 예매/취소 결제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연정보와 통계로 제공한다. 구축 초기에는 공공·민간의 단체/공연장 등 공연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2017년에는 인터파크를 비롯한 주요 예매처 6곳과 연계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률은 그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공연단체가 공연 티켓을 여러 예매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중 한 곳에 제공 동의를 누락하면 한 공연 작품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연전산망이 통계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전체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확한 공연정보 기반의 공연 제작, 정책 수립, 나아가 관객의 관람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공연전산망의 법적 근거 마련과 정보 제공 의무화에 대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공연전산망 관련 공연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된 공연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연법 개정 주요 내용(공포 '18. 12. 24., 시행 '19. 6. 25.)

구분	신설
제4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 전산망 구축 목적 및 운영 근거(제1항) - 정보 제공 의무자 규정(제2항) ▲공연장 운영자 ▲공연 입장권 판매자 ▲공연 기획·제작자 - 전산망 정보 전송 의무(제3항) - 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지정 근거(제4항) - 기타 전산망 가입, 운영 근거(제5항)
제43조 (과태료)	- 정보 제공 불이행자, 누락·조작된 정보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500만 원 이하)(제3항)
시행규칙 (수집 정보의 범위)	▲공연의 명칭 및 종류 ▲기간 및 장소 ▲시간 ▲예매 및 결제 금액 ▲관람자 수 ▲관람 가능 연령 ▲출연진, 제작진, 기획사 및 제작사 ▲좌석 등급과 요금 ▲입장권 판매처 ▲공연 관련 안내 사항

위 내용과 함께 알아야 할 주요 사안은 공연정보의 제공과 전송의 의무이다. 공연전산망은 전산 발권된 티켓 결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현재 수기티켓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산 발권된 공연

티켓은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주체가 자체 발권시스템을 두고 판매하거나, 판매/예매처에 위탁 또는 이 둘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티켓 판매 특성을 고려하여 공연법에서는 공연정보의 제공과 전송의 의무를 구분하였고, 공연정보 제공의 의무는 공연 주체에, 전송의 의무는 공연 주체가 공연 티켓 예매/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처에 두고 있다.

공연정보 제공·전송 의무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공연 생태계

공연전산망은 일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공연시장 규모와 현황 정보를 상시 제공할 수 있다. 물론 공연예술실태조사, 경기동향조사 등 공연시장의 규모를 파악하는 조사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필요한 때에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다. 실시간 현황 파악에 따른 이점 중 하나는 시의적절한 문화예술정책 수립과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일례로 공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외교 문제, 전염병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공연계의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지며, 이에 적합한 대책 마련과 실질적 지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별/장르별 통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장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맞춤 지원도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공연전산망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공연계에 DB·통계로 환원됨으로써 공연 기획과 투자, 마케팅 등 제작의 여러 단계에 걸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다. 가령, 관객들이 어떤 유형의 공연을 찾는 지, 최근 각광받는 장르는 무엇인지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공연제작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영화계는 공연계보다 앞서 2004년부터 영화입장권통합전산망이 가동되었다. 2014년 수행한 영화입장권통합전산망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화산업 종사자들은 시장 동향 파악, 흥행 예측 분석, 산업 투명성 제고, 수익정산의 근거, 기획의 기초자료로 영화입장권통합전산망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공연전산망 데이터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짐작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공연전산망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공연계에 DB·통계로 환원됨으로써 공연 기획과 투자, 마케팅 등
제작의 여러 단계에 걸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다.



가령, 관객들이 어떤 유형의 공연을 찾는지, 최근 각광받는 장르는 무엇인지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공연제작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공연전산망

공연DB와 통계 데이터를 가공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정기적인 시장 흐름 분석이나 흥행 예측, DB를 활용한 공연 홍보와 콘텐츠 생성, 외부 데이터를 연계한 관객 소비 행태 분석 등 공연 생태계에 활기를 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는 시기가 머지않았다.

그러나 공연전산망은 우선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현재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집계 및 DB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장르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정보와 통계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로그인 기능을 도입하여 공연 단체, 기획/제작사가 자기 공연의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 다양한 공연이 관객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공연 소개 페이지 기준을 다양화할 것이다. 또 더욱 충실한 공연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을 확대하는 등 본래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 기반의 제작환경과 투명한 공연 시장을 위해 시작된 공연전산망이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공연계의 따뜻한 관심과 든든한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 함께 고민하는
부산 바다를 위해

서상호
바다미술제
전시감독



글. 김건수 부산일보 논설위원
사진 제공.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서상호는 부산의 대안 미술공간 및 전시기획의 역사를 더듬을 때 늘 마주치는 이름이다. 놀랍게도 그의 활동은 지금까지도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세월이 어느덧 20여 년에 이른다. 산복도로 1번지 프로젝트(2006~2009년)와 무빙트리엔날레 메이드 인 부산(2014년) 등을 맡아 예술의 대중화에 투신해온 이력까지, 삶 전체가 예술의 가능성에 대한 남다른 신념의 실천 현장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제 그의 눈길이 머문 곳은 바다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바다를 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2019 바다미술제 전시감독을 맡은 그를 만나 나눈 얘기들을 정리했다.

서상호 전시감독 프로필

학력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섬유미술학과 졸업
동대학원 미술교육학과 석사 졸업

현직

오픈스페이스 배 대표
대안 한투아트그룹 큐레이터
(사)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 협회장
경성대학교 겸임교수

주요활동

2015 아트부산 <아트 액센트> 특별전 기획
2014 무빙트리엔날레 메이드 인 부산
공동대표
2006-2009 산복도로 1번지 프로젝트
예술감독
2006 아트인 시티 공공미술 프로젝트
아카이브전 전시감독

수상

2010 지역문화예술공로상
(부산광역시 동구청)
2005 제4회 오늘의 작가상 청년상 수상
(부산미술협회)

바다미술제는 다른 지역에선 볼 수 없는 부산만의 독특한 미술축제입니다. 바다미술제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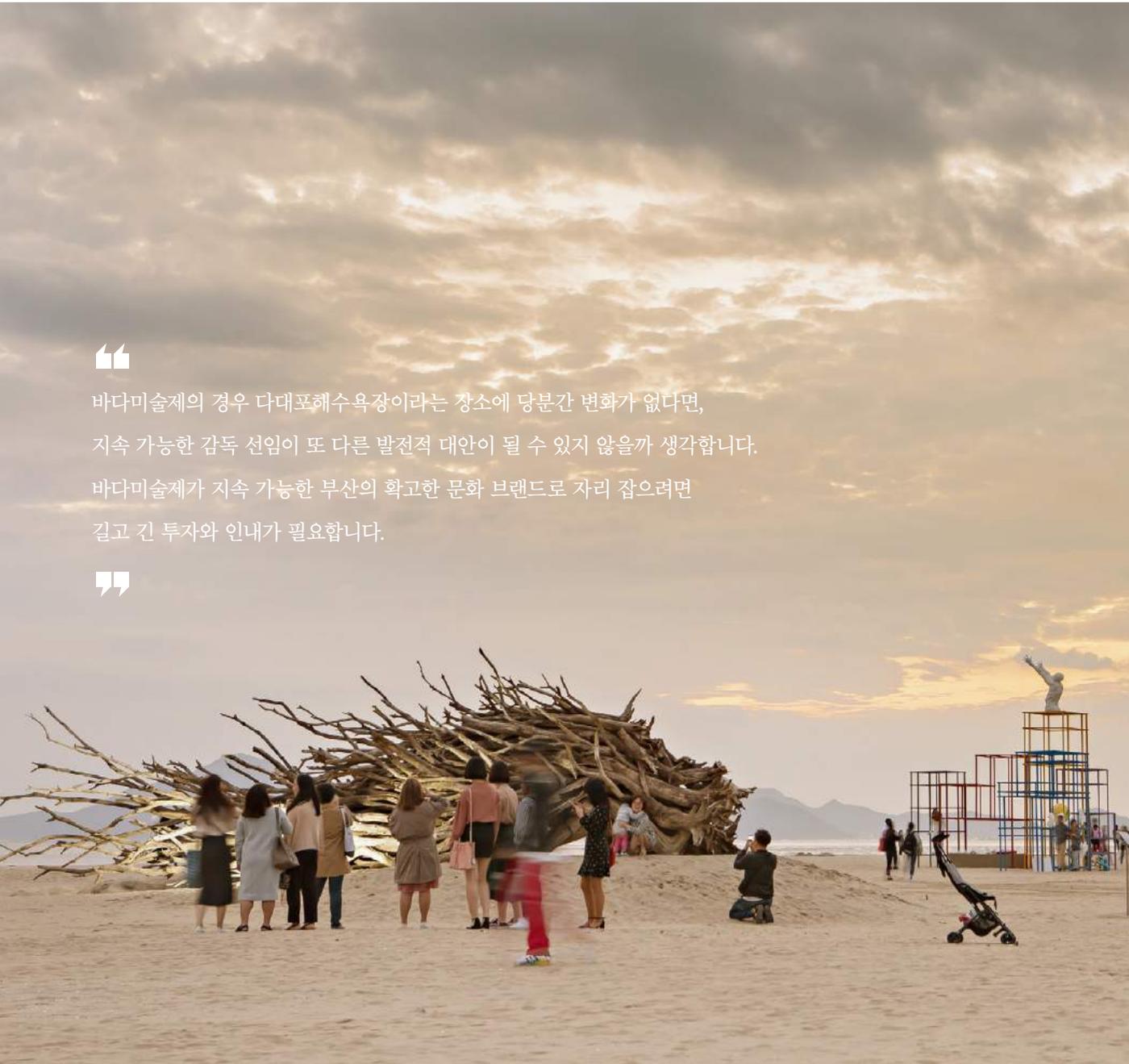
바다미술제의 출발점은 1987년입니다. 88서울올림픽의 프레올림픽 문화 행사의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해마다 부산의 자랑인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리해수욕장 일대를 중심으로 야외 설치 작품들이 전시되어 대중들과 호흡을 함께 해왔습니다. 2000~2010년까지는 부산비엔날레 행사의 하나로 흡수되었다가 2011년부터는 부산비엔날레에서 독립해 홀수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다, 훌륭한 자연경관과 함께 많은 사람이 미술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근감, 소통성, 공공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부산 곳곳의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한 바다미술제는 이제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9 바다미술제는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30일 동안 대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바다미술제의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예술이 시대와 삶의 거울이라는 사실은 새삼 재론할 바가 못 됩니다. 지금 여기, 인간과 삶과 세상을 담지 않는 예술이 무슨 의미가



바다미술제의 경우 다대포해수욕장이라는 장소에 당분간 변화가 없다면, 지속 가능한 감독 선임이 또 다른 발전적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다미술제가 지속 가능한 부산의 확고한 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으려면 길고 긴 투자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있을까요. 미술 역시 예술과 삶의 연결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미술제는 예술 수용자들과의 교감이라는 예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사유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바다미술제의 방향성을 ‘환경’과 ‘생태’에 초점을 맞추고 전시 주제를 ‘상심의 바다(Sea Of Heartbreak)’로 잡은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바다를 공유하는 아시아 국가의 작가들이 다 함께 인류의 미래가 걸린 이 주제를 꺼안고 지구촌 모두의 이야기로 풀어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지역성과 보편성은 서로 외면하지 않고 행복하게 포용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바다미술제의 전시 내용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전시는 크게 ‘상실의 바다’, ‘변화의 바다’, ‘재생의 바다’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하는 바다가 구체적인 현실에서 ‘상실’을 일으키지만 이를 계기로 ‘변화’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재생’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상실의 바다’는 인간의 욕망으로 찢기고 있는 해양 생태의 문제를 토대로 합니다. 현실에 대한 부끄러움, 자연에 대한 죄책감, 과거에 대한 향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등 ‘상실’의 복합적인 모습을 한국·미얀마·캄보디아 작가 10여 명이 현장 작품으로 풀어냅니다. 시민들도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협업을 통해 관심과 각성을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변화의 바다’에서는 생태라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한 서로 다른 언어권의 작가와 단체들이 연대하여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대만·홍콩·태국에서 다국적 프로젝트 팀들이 참여하는데, 팀별로 참여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재생의 바다’는 사유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본래 기능을 다하고 방치되어 있는 다대포 쓰레기 소각장이 전시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과거의 순수했던 시간으로 돌아가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는 경험을 통해 ‘인식의 재생’을 유도합니다. 그렇게 재생의 진정한 의미를 묻고자 합니다.

올해 바다미술제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행사를 소개한다면?

전시 오픈 다음 날인 9월 29일 부산현대미술관에서 국제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아시아의 미술 생태계와 환경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2022년 카셀 도큐멘타 감독으로 선임된 인도네시아의 작가 그룹 ‘루앙 루파’가 주제 발표를 맡아 기대



가 매우 큼니다. 아시아의 미술 생태와 협업 방식을 소개하고 국내외 주요 관계자들과 열띤 토론도 벌일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매주 금요일에는 참여 작가들과 전 전시감독들이 꾸미는 좌담회 형식의 오픈 토크도 열립니다.

바다미술제는 성장과 함께 아픔도 겪었습니다. 작가 선정을 두고 몇 차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바다미술제처럼 큰 규모의 미술 행사를 앞두고 늘 대두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 작가의 비율'입니다. 지역 미술계에서 동료 혹은 제자, 후배들을 참여 작가로 배려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심분 이해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지역 작가들이 발전의 기회를 얻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미술계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관행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시대의 빠른 변화를 수용할 줄 알고 그것을 동시대 미술 언어로 작품화하는 노력만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바다미술제가 과거의 관습과 명분에만 얽매 있다면 부끄러운 지역 미술 행사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 2017 바다미술제 전경

장기적 안목에서 바다미술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전망 혹은 견해가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행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계 최고의 공공 미술 행사로 인정받는 독일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도시 전체가 조각 공원인 이 행사는 카스파 괴니히라는 사람이 1977년에서 2017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총감독을 맡아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작년에 이 감독이 사임하면서 후임 감독 선정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시간에 급박하게 쫓기는 일회성 행사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새삼 보고 배워야 할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다양성을 위해서 감독의 잦은 교체는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난 성과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다지 좋은 점수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장소를 이해하고 조직을 체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 정착 행사의 핵심적인 부분에는 투입할 여력이 없는 슬픈 아이러니, 우리는 그걸 늘 반복해왔습니다. 바다 미술제의 경우 다대포해수욕장이라는 장소에 당분간 변화가 없다면, 지속 가능한 감독 선임이 또 다른 발전적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다미술제가 지속 가능한 부산의 확고한 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으려면 길고 긴 투자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공감 리뷰

034 갓 스물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A vibrant rock festival scene at night. The background shows a large crowd of people, some holding up phones to capture photos. In the distance, a stage is illuminated with bright green and blue lights, featuring a large, glowing white structure that resembles a complex grid or a stylized figure. The overall atmosphere is energetic and festive.

**2019
Busan
International**

**Rock
Festival**



갓 스물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부디 _____ 건강하게만 _____ 자라다오

글. 방호정 작가, 부산힙스터연맹 총재
사진 제공.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2000년 광안리에서 시작해 빗발치는 민원에 따라 다대포로, 또 지금의 삼락생태공원으로 떠돌며 어느덧 스무 살 청년이 된 대한민국 최장수 록페스티벌인 2019 부산국제록페스티벌로 향하는 길은 어느 때보다 만감이 교차했다. 초기엔 무려 '무료'인 주제에 국내에서는 영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음악잡지에서나 보던 무시무시한 해외의 헤비니스 팀들이 대거 출연하는 바람에 여름이면 대한민국의 록매니아들은 부산으로 집결했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하 부산록페)의 최고의 메리트는 바로 '무료'였다는 점일 것이다.

‘록부심’을 충족시켜 주었던 어화등등 우리 부산록페

다른 동네도 아니고 놀기 좋기로 소문난 대한민국 여름의 수도 ‘부산’이다. 전국에서 모여든 장발의 록매니아, 시끌벅적한 소리에 뭔가 싶어 마실 나온 동네 어르신들과 어린이들, 외국인 노동자들, 일단 사람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나는 상인들, 이 모두가 강렬한 록 사운드 속에 한데 어울려 세계 어디서도 보지 못했을 진풍경을 만들어냈던 것 역시 부산록페의 특징이자 강점이었을 것이다. 누구든 쉽게 드나들 수 있었던 록페스티벌. 아마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록 밴드의 라이브를 접했을 것이고, 기타나 드럼을 배워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을 것이고,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 록의 저변화에 크게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올해부터 ‘유료화’로 진행된다. 과거의 진풍경들이 언젠가 그리울 테지만, 록 음악을 사랑하는 부산시민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도무지 부산에서는, 공연을 돈을 내고 본다는 상식이 잘 통하지가 않는다. 특히 여름의 부산에선 더더욱 그렇다. 여기저기 해변에서 바다축제가 벌어지고 유명가수들의 공짜 공연들이 줄을 잇는다. 광안리나 해운대에만 가도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는 청년들이 가득하다. 그러다 보니 햇볕처럼 바람처럼 음악도 원래 공짜라는 그릇된 인식이 정착된 건 아닐까?

그리고 첫 유료화가 진행되는 2019년 7월 마지막 주말, 역시 나는 몹시 복잡한 심경이었다. 대한민국 여러 록페스티벌들이 난항을 겪거나 사라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유료화되는 부산록페에서 독보적인 일렉트로니카 듀오 케미컬 브라더스에 이어, 초강력 메탈밴드 시스템오브어다운이 헤드라이너로 발표되던 때만 해도 대한민국 록매니아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록페스티벌이 멸종 직전에 이른 대한민국을 구원할 최고의 록페스티벌이란 칭송이 이어졌고, 대중성과 ‘록부심’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가 막힌 한 수였다. 칭찬 릴레이가 이어졌다.

유료화와 함께 찾아온 갑분.god,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잘나가고 있는 와중에 아뿔사, 시스템오브어다운의 에이전시를 사칭한 이들에게 주최 측이 사기를 당해 출연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 살다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라고 체념할 무렵, 갑자기 god가 헤드라이너로 등장하며 갑자기 분위기 god. 잔뜩 들떠 있던 록매니아들은 광분에 휩싸인다. 에이 설마?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던 그 god? 분노한 록매니아들은 ‘이게 록페냐’며 울분을 토했고, 즐지에 god의 오랜 팬들마저도 오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상처받았을 것이다. 어쨌든 명색이 록페스티벌인데, 양일간 헤드라이너 중 밴드는 한 팀도 없는 셈이다. 나 역시 몹시 뼈저리게 올해는 부산록페를 거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던 와중에 7월 마지막 주말 부산록페와 같은 시기에 예정되었던 지산록페스티벌이 행사를 3일 앞두고 전면 취소가 되었고, 역시 같은 시기에 인천에서 열린 홀리랜드데이페스티벌 역시 출연진들의 공연취소가 대거 이어졌으며, 그 와중에 아티스트와 주최 측 간의 책임공방까지 벌어졌다. 그 난리통에 부산록페에 대한 20년간 쌓인 애증이 어쩔 수 없이 누그러졌다.

시험 망친 우리 자식에게 실망하던 차에 다른 집 자식들이 줄줄이 대형사고를 쳤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거 참, 애가 시험 좀 못 볼 수도 있지. 20년 동안 큰 탈 없이 유지되어온 게 어딘가. 심지어 그동안 공짜로 실컷 즐겨놓고 물고 뜯는 건 좀 그렇다. 그래도 이번엔 유료잖아? 유료화의 장점 하나, 좀 더 편안한 맘으로 물고 뜯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본전을 뽑으려는 관객들의 아름다운 자세

대망의 부산록페 첫날, 7월 27일 토요일 저녁에는 슬프게도 비가 내렸다. 슬픈 기억들이 떠오른다. 비를 맞으며 연주하는 밴드와 진창이 된 풀밭 위에 등성등성 서있는 관객들 그리고 관객 수를 조금이라도 채워보고자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와 일당백의 리액션을 펼치던 장면. 더위와 습기에 땀에 흐르는 것이 땀인지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케미컬브라더스를 제치고 가장 보고 싶었던 무대였던 백예린(JYP 소속 여성 솔로가수. 취향이니 존중 바람)의 공연을 보았다.

우선 예상했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라 의미했다. 한창 핫한 인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고 또는 맨몸으로 비를 맞으며 공연을 즐기는 관객들이 예전에 비해 제법 많았던 탓이다. 비슷한 관객 수라도 예전 같았으면 멀찌감치 자리를 깔고 공연을 하든 말든 술 마시며 수다 떠는 이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대가를 지불하고 온 관객들은 야외공연의 가장 큰 적인 악천후에도 아랑곳없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어쩌면 그런 관객의 모습이 빗속에서 공연을 강행하는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감동과 힘이 되었을 것이다. 이 또한 유료화가 이뤄낸 성과일 것이다. 열정적으로 집중하여 음악을 즐기는 모습. 뼈뺏하게 보자면 본전 생각일 수도 있겠으나 적극적으로 본전을 뽑는 모습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희열의 진가

나 역시 본전을 뽑기 위해 둘째 날 7월 28일에는 일찌감치 서둘러 삼락공원에 도착했다. 올해부터 유료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냥 출입하려다 저지당하는 동네 주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에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했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음악은 바람이나 햇볕처럼 그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이 노력하고 고민해서 만들어낸 것이니까. 다행히 사상구민들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한다.

90년대 얼터너티브록 사운드를 재해석한 듯한 호주 출신 여성록커 커트니 바넷의 뜨거운 무대가 끝이 나고 어두워지자 드디어 케미컬브라더스의 무대가 시작되었다. 케미컬브라더스의 무대는 그야말로 감상하는 공연이 아니라 체험하는 공연이었다. 커다란 스크린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영상과 레이저쇼. 꽃가루가 흩날리고 커다란 오색풍선들이 관객들을 향해 쏟아지다 마침내 거대한 로봇 두 대가 나타나 허공에서 레이저를 쏘며 허우적대었다. 관객 틈에서 날뛰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취재를 하러 왔고, 일하는 중인데 과연 이렇게 신나도 되는 걸까? 거의 단독공연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케미컬브라더스의 무대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유료화의 정당성을 확실히 증명하는 무대였다. 그들의 무대에서 여러모로 고생한 부산록페 주최 측의 강렬한 회심의 메시지를 느꼈다. '대가를 지불하신다면 이런 무대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록페의 존재 의의가 계속 증명될 수 있기를

균형을 위해 사소하게 아쉬운 점들을 나열하자면, 여전히 화장실이 부족하여 매번 길게 줄을 서야 했던 것과 무대와 다음 무대 사이의 시간차가 가끔 너무 늘어져 맥이 끊기는 경향이 있었으며, 난입을 시도하는 암체관객들을 막고자 했던 의도로 짐작되지만 무대 주변에 높은 담처럼 둘러친 패널은 주변 풍경을 가려 어쩐지 갑갑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가장 불만이었던 것은 이 정도로 공들인 무대를 준비한 것 치고는 티켓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 아닌가 싶다.

이제 스무 살이 된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유료화를 계기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 믿는다. 다양한 불평불만들은 매번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성숙하고 노련해진 모습으로 대한민국에, 부산에 록페스티벌이 필요한 이유를 멋지게 증명해주길 힘껏 응원하는 바이다.

» 2019 부산국제록페스티벌 포스터



도어아오요 부산향애

042 니, 그거 아냐? | 한국 신발의 중심, 세계 신발의 중심

046 누꼬? | 화려한 성공, 화려한 실패 자명 김지태

052 거 가봤나? | 기차길 따라 옹기종기, 무지개 희망마을





한국 신발의 중심, 세계 신발의 중심

글·사진: 동김산 시인

한국 신발 100주년! 2019년 올해는 고무신에서 시작한 한국 신발산업이 100주년 되는 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올해 각종 기념행사가 열렸듯 신발산업 역시 3·1운동의 산물이었다. 마른 땅 들 불처럼 번진 3·1운동에 화들짝 놀란 조선총독부는 유화정책을 폈고 산업계에도 숨통을 틔었다. 덕분에 조선인도 공장을 지을 수 있었고, 1919년 8월 한국 최초의 신발회사가 들어섰다.



> 삼화고무 범표신발



➤ 1980년대 신발회사 생산 현장

부산 최초 신발회사, 일영고무와 선만고무

나는 1960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무크지 <지평>으로 등단했으며 <꽃이 지면 꽃만 슬프라> 등 시집 여섯 권과 <포구를 건다> 등 산문집 다섯 권 그리고 한국 신발 100년사 <고무신에서 나이키까지>를 펴냈다. 1985년부터 1991년까지는 신발회사 삼화고무에 다니면서 부산신발과 인연을 맺었다.

한국 최초의 신발회사는 대륙고무였다. 서울 회사였지만 사장은 부산 기장사람 이하영이었다. 구한말 장관을 지냈고 일제에 협력한 공이 지대해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신발회사 자본금도 거기서 나왔다. 100주년이니 잔치 벌이자고 떠벌리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이승만 독재정권 군 동원 명령에 불응해 육군참모총장에서 물러났던 이종찬의 할아버지다.

부산 최초 신발회사는 어딜까? 부산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부산연구원에서 펴낸 <부산기업사>는 일영고무로 나온다. 그러나 <국제상사 30년사>와 부산대 경제학과 임정득 교수 등이 공저한 <한국의 신발산업>, 부산시 디지털 백과사전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는 선만고무로 나온다. 누가 맞을까? 둘 다 맞다. 부산 최초 신발회사 설립은 선만고무가 일영고무보다 1년 빠르지만 일영고무는 순수 부산기업이고 선만고무는 본사를 서울에 둔 전국 기업이었다. 부산연구원은 순수 부산기업 관점에서 일영고무를 최초로 봤다. 일영고무는 1923년 8월 설립했다. 동구 좌천동 688번지에 있었고 부산 지주 김진수가 사장이었다. 종업원 200명에 연간 20만 쪼 가까이 생산했다. 좌천동과 인근 수정동 일대는 당시 부산정신의 핵심이었다. 반골의 상징인 부산진성이 있었고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의 영웅 박재혁 열사가 태어났다. 1926년 김영준이 설립한 도변고무 역시 이 일대에 있었다. 일제강점기 조선 자본으로 세운 신발회사는 일제에 대항하는 측면이 적지 않았던 게 지역성에서도 드러난다.

신발에서 시작된, 불의에 굽히지 않는 부산정신

부산 신발은 1930년대 질풍노도에 직면한다. 첫 질풍노도는 여공 총파업이었고 다음 질풍노도는 신발 회사 통폐합이었다. 이 둘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부산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부당함과 비정상에 결연히 맞섰던 부산정신은 이후에도 부산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 1940년 항일학생운동, 1960년 4·19의거, 1980년대 전후의 부마민주항쟁과 6월항쟁 등으로 이어졌다.

한국 여공 총파업은 1922년 조선방직에서 처음 일어났다. 이전까지 남자 총파업은 없었기에 한국 총파업의 본산이 곧 부산 범일동 조선방직이었다. 이후 여공 파업은 서울 고무공장, 인천 정미소, 진해 수건공장 등 곳곳으로 번졌다. 부산 신발회사는 1929년 여공 동맹파업을 필두로 1930년 환대고무, 1931년 희성고무, 1933년 울전고무·환대고무·대화고무·일영고무·부산고무 등의 파업이 잇달았다. 1933년 총파업은 위장 취업한 허정숙(1902~1991)이 이끌었다. 한국 산업계 최초의 위장취업자 허정숙은 주세죽, 고명자와 함께 1920년대 여성 트로이카로 불린다.

1930년대 신발 통폐합은 부산 신발산업의 판도를 바꾸었다. 부산에서 신발회사가 늘어나고 특히 조선 자본 회사가 급성장하자 위기감을 느낀 일제는 대기업 삼정물산을 내세워 생산 통제에 나섰다. 수원 이남 남산 일대 29개 공장을 대상으로 통폐합에 나섰으나 반발이 컸다. 도변고무 김영준은 반발에 그치지 않고 경북과 전북으로 확장했다. 그가 '고무계의 패왕'으로 불리는 이유다. 결국 29개 공장 가운데 10개 회사만 규합해 1933년 4월 8일 통제협정을 맺었다. 가입공장은 부산에선 울전고무·환대고무·부산고무·일영고무·능암고무·시미사 등이었다.

부산 신발의 자생력을 무너뜨린 '나이키'의 등장

1950년대 부산 신발은 또 대변혁을 맞는다. 한국전쟁 임시수도 부산은 행정과 정치는 물론 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선다. 신발도 마찬가지로였다. 삼화고무·보생고무 등 일제강점기부터 있던 기업과 국제고무·신흥고무·신라고무 등 광복 이후 새로 들어선 기업 그리고 동양고무·태화고무 같은 피란 기업이 자리 잡으면서 부산은 일약 한국 신발산업의 메카로 떠오른다. 그때부터 1990년대 초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순간이었다. 1990년대 들어 우르르 무너졌다. 가장 큰 원인은 나이키 같은 거대 외국 기업에서 비롯했다. 그들이 주문한 신발에 그들의 상표를 부착하는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일명 OEM 방식은 꿀이면서 독이었다. 만들기만 하면 팔렸으므로 가히 무풍지대였지만 자생력을 무력화시키는 독이기도 했다.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름대로 자체 상표 개발에도 나섰고 마케팅에도 나섰지만 나이키 같은 대자본을 상대하기엔 버거웠다. 조금만 꿈틀거리면 주문량을 줄인다든지 끄는 방법으로 싹을 잘랐다. 1980년대 파업 등으로 제조원가가 높아지자 중국이나 베트남 등 인건비 낮은 국가로 이전을 권유한 것도 그들이었고, 그러면서 한국 신발산업은 텅텅 비어갔다.



▶좌) 부산진구 부암동 진양고무 자리 신발 동상, 우) 섬돌과 고무신 박정화 사진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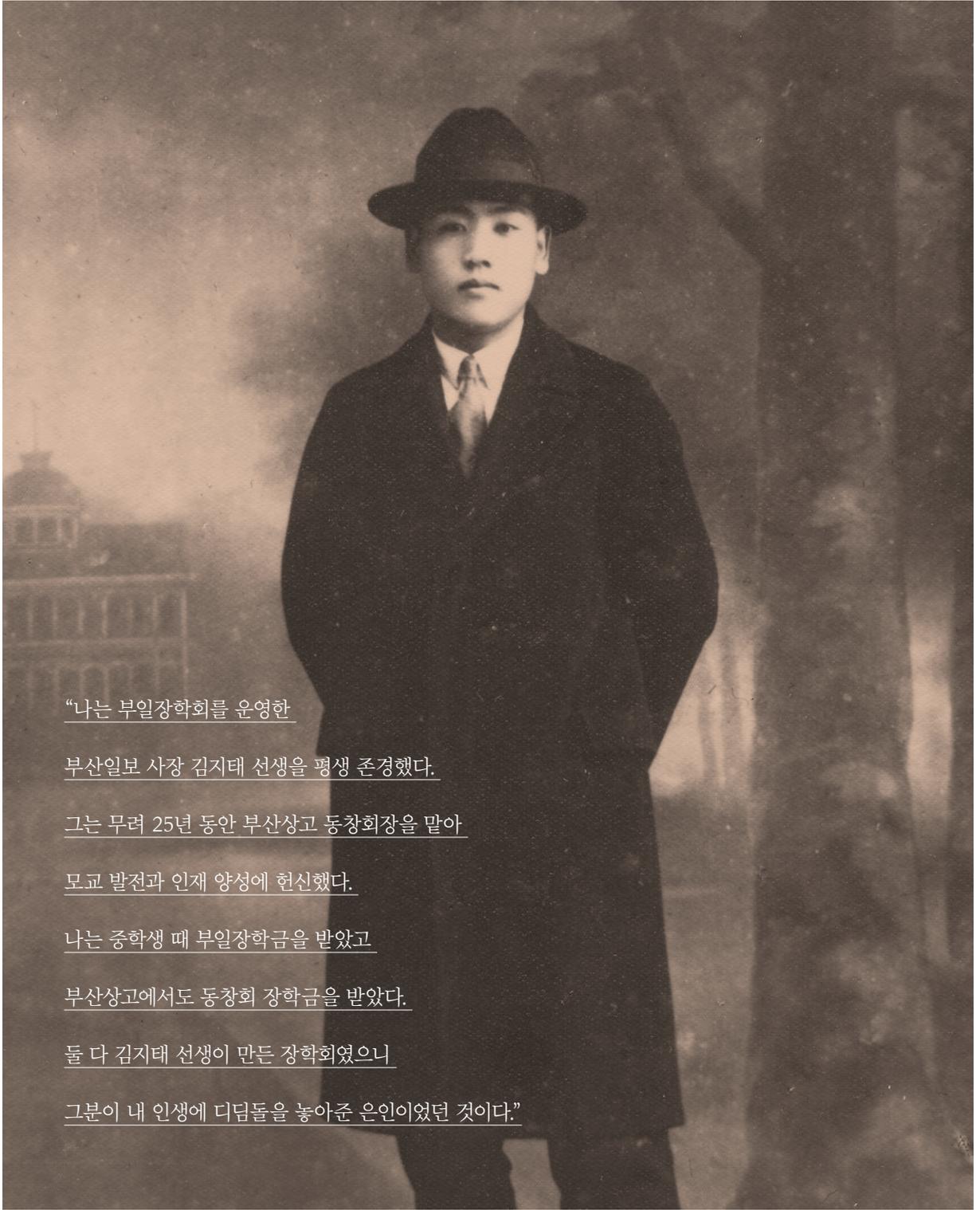
국제, 대양, 동양, 보생, 삼화, 진양, 태화. 부산에서 신발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신발 대기업 면면이다. 이들 가운데 화승으로 이름을 바꾼 동양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모두 과거의 기업이 됐다. 평수가 어마어마했던 대기업이었던 만큼 그 자리엔 대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추억 삼아 그들을 대표하는 상표를 되새긴다. 국제 왕자표, 대양 슈퍼카미트, 동양 기차표, 보생 타이어표, 삼화 범표, 진양 진양표, 태화 말표.

전 세계 땅을 밟는 한국 신발, 부산 신발의 위상

신발은 한 시절 부산을 대표하는 산업이었다. 부산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일등 산업이었다. 1962년 처음 수출한 이래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그것이 종자돈이 되어 한국은 산업을 일으켰고 경제부흥으로 나아갔으며 마침내 경제 대국이 됐다. 1980년대 들어 한국 고급 운동화는 이탈리아 구두, 대만 플라스틱 신발과 함께 세계를 대표하는 신발로 등극했다. 부산진구 부암동 진양고무 자리에 세워진 황금 신발 동상은 부산이 세계 신발산업의 중심지였음을 기념한다.

한국 신발의 명성은 지금도 대단하다. 1990년대 침체기를 거쳤으나 2000년대 다시 도약했으며 현재 세계 어디를 가도 '넘버 원'이다. 전 세계 아디다스 운동화 열 켤레 가운데 아홉 켤레는 한국 기업 신발로 보면 되고 세계 4대 자동차 업체인 벤츠와 아우디, BMW, 폭스바겐 현장 근로자가 신는 안전화도 대부분 한국 기업 신발이다.

‘인류가 신발을 신고 다니는 한 신발산업은 망하지 않는다.’ 내가 신발회사에 다니던 시절 곧잘 들었던 말이다. 신발산업이 가진 무한성과 확장성은 시대 불변의 가치이자 진리다. 부산은 세계 신발의 중심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후로도 그럴 것이다. 부산의 신발을 다시 보고 두루 봐야 하는 이유다.



“나는 부일장학회를 운영한

부산일보 사장 김지태 선생을 평생 존경했다.

그는 무려 25년 동안 부산상고 동창회장을 맡아

모교 발전과 인재 양성에 헌신했다.

나는 중학생 때 부일장학금을 받았고

부산상고에서도 동창회 장학금을 받았다.

둘 다 김지태 선생이 만든 장학회였으니

그분이 내 인생에 디딤돌을 놓아준 은인이었던 것이다.”



화려한 성공, 화려한 실패

金智泰

자명 김지태

글. 배석만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강사
사진 제공. 동길산 시인, 문진우 사진가

왼쪽 인용문은 2010년 출간된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노무현재단 엮음, 돌베개)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노 대통령이 은인이자 평생 존경했던 사람 김지태(金智泰)는 20세기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굴지의 기업가 중 한 명이며, 정치가, 언론인, 사회사업가로도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그의 인생을 따라가 보자.



» 김지태 회장이 경영하던 시절의 부산문화방송 전경

‘부산사람’을 자부한 일생

김지태는 1908년 부산 좌천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부산에서 12대를 살아온 토호였다. 재력도 상당해서 조부 김채곤(金采坤)은 영남 대사찰 통도사의 신도 회장을 할 정도였고, 개화에도 일찍 눈을 떠서 육영재(育英齋)라는 사립학교를 세워 후진을 양성하였다. 부산의 유력 토박이 집안이자 일찍부터 신문물에 눈을 뒀던 조부의 영향은 김지태에게 부산에 대한 자부심을 심었고, 그의 전 생애에서 변치 않는 가치관이 되었다. 김지태가 기업가라는 본연의 일 외에 지역의 대변자임을 자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그 스스로 ‘외도’라 말했던 다양한 사회 활동을 끊임없이 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부산상공회의소 설립 주도, 산업신문(국제신문 전신) 창간, 부산일보 사장, 부산특별시승격기성회 회장, 2·3대 국회의원(부산 甲), 부산문화방송 설립, 부산강생회 설립, 부일영화상 제정, 부일장학회 설립, 부산상고 장학회 설립 등이 그의 다채로운 사회활동 이력이다. 특히 1946년부터 추진한 ‘부산의 특별시 승격운동’은 1963년 직할시 승격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지태의 머리에는 김해와 구포를 아우르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대부산 건설의 청사진이 들어있었다. 그가 경영한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지역 언론의 중추로 성



» 부일장학회 발족 기사

장하였고, 부산문화방송은 현재 MBC의 시작이다. 그가 설립한 장학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하여 부산·경남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성장하였다.

부산지역 대표 기업가로

김지태가 일제시기 기업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 최초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32년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로부터 불하받은 울산의 토지 2만 평이다. 동척과의 인연은 1927년 부산제2상업학교(부산상고 전신)를 졸업하고 동척 부산지점에 입사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동척 생활은 1932년 갑작스럽게 폐결핵에 걸리면서 끝났다. 병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김지태에게 당시 동척 부산지점장이었던 가사이(笠井)가 동척 소유 토지를 불하해주었다. 김지태는 훗날 회고를 통해 이것은 큰 특혜였는데, 일본인 지점장이 자신을 인간적으로 크게 신뢰했기 때문이었다고 술회하였다. 울산에서 농장 경영을 하며 요양한 김지태는 2년여 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1934년 '부산진 직물공장'을 인수하여 기업가로 변신하였다. 그러나 첫 사업은 실패였다. 실패 이유에 대해 그는 경험 부족과 대기업과 경쟁에서의 패배가 원인이었다고 회고하였다. 회사를 정리한 돈이 부채를 탕감하기에도 모자랐을 정도로 큰 실패를 보았지만, 이것은 이후 그의 기업경영과 성공에 밑거름이 되었다. 첫 사업에 실패한 김지태가 재기를 위해 선택한 사업이 지기공업(紙器工業)이었다. 울산의 농장을 담보로 마련한 자금으로 시작한 두 번째 사업은 날로 번창하였고, 김지태는 산업 자본가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사업이 성공한 이유는 우선 오사카(大阪)에서 수입한 신기계의 성능이 좋아 다른 업체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업 성공의 무엇보다도 큰 계기는 공장 설립 1년 후 발발한 중일전쟁이었다. 전시특수로 인해 지류의 수요 자체가 급증하였고, 만주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옴으로 해서 만주와 다렌(大連)의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그의 사업은 무역업과 부동산업, 기계공업으로 확장되었다. 사업의 성공을 통해 김지태는 일제시기 부산에서 가장 많은 호별세(戶別稅)를 내는 인물이었다. 해방 전 이미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기업가로 성장해 있었던 것이다.

삼화고무 '케미컬슈즈' 센세이션

해방은 김지태가 지역의 울타리를 벗어나 전국구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 기회는 이미 성공한 기업가라는 기반 위에 일제 패망으로 남겨진 일본인 소유의 공장들, 이른바 귀속기업체에 의해 만들어졌다. 해방 후 그의 3대 주력기업 중 조선견직(朝鮮絹織)과 삼화(三和)고무가 귀속기업체이고, 한국생사(大韓生糸)를 정점으로 한 전국의 여러 제사공장들 중에도 동방제사(東邦製糸), 대한생사(大韓生糸) 등이 귀속기업체였다. 이 중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국생사를 중심으로 하는 제사업(製絲業)이었다.

김지태가 비단과 인연을 맺은 것은 귀속기업체 아사히견직(旭絹織)의 관리인이 된 것이 계기였

다. 그가 '비단 재벌'로 알려지게 되는 토대가 된 조선견직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비단 제조의 원료인 생사가 수출제품으로 부각되면서 이를 생산하는 제사공장을 장악, 생사의 직접 수출 및 조선견직을 통한 제품화 수출이라는 양 경로를 통해 1950년대에 이미 전국 굴지의 기업가 중 한 명으로 성장하였다. 1960년대 박정희정권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그의 사업을 더욱 성장시켰다. 1970년대 그의 기업은 조선견직과 한국생사 그리고 신발을 생산하는 삼화고무의 3개 회사를 주축으로 한 거대그룹으로 성장했다. 특히 실크산업에 있어서는 국내 최강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생산업체가 되었다. 시중의 농담이지만 '세계 최대의 제사업자는 모택동이고, 다음이 일본의 가타쿠라제사(片倉製絲) 그리고 제3위가 김지태'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고, 김지태는 재계에서 비단 재벌로 통했다. 비단과 함께 김지태 기업경영의 양대 축을 형성한 신발제조업체 삼화고무는 경영난에 허덕이던 회사를 1950년대 말에 인수한 것이었다. 김지태는 과감하게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 시장을 적극 공략함으로써 삼화고무를 몇 년 만에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특히 합성피혁 신발인 '케미컬슈즈'라는 신상품을 생산하여 일대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삼화고무는 한때 종사원 수가 1만 명이 넘어설 만큼 규모가 성장하여 부산 신발산업의 간판이 되었다. 당시 공장이 있던 범천2동과 4동 일대에는 '집집이 삼화고무에 다니지 않는 집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화려한 실패

화려한 성공만으로 순항한 듯이 보이는 김지태의 인생에도 위기가 있었다. 1950년대 가장 떠들썩한 정치경제 스캔들 중 하나였던 '조방낙면사건(朝紡落綿事件)'에 휘말린 것이 그 첫 번째 위기였다. 사건의 내용은 귀속기업체이자 국내 최대 면방직 공장이었던 조선방직주식회사(조방)에서 생산하는 군수용 광목에 불량면(落綿)을 의도적으로 혼합하여 제품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적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4월,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조방 경영진 20여 명이 구속되었다. 조방의 이사였던 김지태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구속은 면했지만 기소되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사건의 발단 원인은 김지태가 이승만의 대통령 연임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에 있었다.

두 번째 시련은 5.16군사쿠데타를 계기로 찾아왔다. 쿠데타 직후 군사정권은 부정축재처리법을 공포하여 1950년대 성장한 주요 기업가들을 체포하였다. 김지태도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결정된 5억 4,570만 원을 부정축재 환수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62년 4월 밀수와 해외재산도피 혐의로 다시 구속되었다. 김지태는 소유하고 있던 부산 일보, 문화방송, 부일장학회와 장학회의 기반이었던 부산 소재 토지 10만 평에 대한 양도각서를 쓰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 삼화고무가 (주)삼화로 변경된 후의 현판식(1976.2.26.)
가운데 김지태 회장과 김영주 사장



» 은탑산업훈장 수훈(1970.11.30.)

이 사건은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었다. 이 재산을 기반으로 5.16장학재단-현재의 정수장학회(正修獎學會)-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김지태는 1980년 직접 5.16장학회를 상대로 재산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의 사후인 1988년에 다시 국회청원이 있었고, 청원서에는 김영삼, 노무현 등 당시 부산출신 국회의원 전원이 소개 의원으로 서명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한 유족의 소송이 지속되었으나 재산 반환의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김지태가 정권의 강압에 의해 재산을 헌납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으나,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2014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었다.

역사 앞에서

김지태는 말년까지 호적과 주력 기업을 부산에 두고 있음을 자랑스러워 할 만큼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컸다. 그러나 1982년 사망 후 부산에서 그의 흔적은 너무나 빨리 사라졌다. 부산을 대표한 향토기업이기도 했던 주력 기업들은 부산 제조업 쇠퇴를 대변하듯 대부분 사라졌고, 그가 살던 범천2동 가옥이 팔려 아파트가 들어서고, 집안에 있던 수목들은 부산시가 매입하여 가로수로 심었다. 그러나 영광은 사라졌다고 해도 역사는 남는다. 기업가로서만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지역 언론의 창달자로서, 지역 인재를 육성한 사회사업가로서 근대 부산을 대변하였음을 아직도 그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호명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경부선 철길 옆 무지개 뜨는 희망마을

기차길 따라 응기종기 무지개 희망마을

글·사진. 문진우 사진가, 본지 편집위원장

“기차길 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도 잔다.

칙~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소리 요란해도 아기 아기 잘도 잔다.”

어릴 적 불렀던 동요의 노랫말이다. 기차길 옆 주거환경이 좋을 리 없다. 그런데 왜 이런 동요를 만들었을까?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에게 전할 위로의 의미로 만든 노래가 아닌가 싶다.



» 무지개 뜨는 희망마을 입구

부산 지하철 3호선 냉정역 근처에는 경부선이 지나는 철길 바로 옆에 생겨난 마을이 있다. 행정구역상 주례동에 자리한 이 마을의 이름은 <무지개 뜨는 희망마을>이다. 비록 열악한 주거 환경이지만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자는 의미로 지은 것 같다.

이 마을은 양쪽 지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 높은 곳에서 보면 어머니 자궁 같은 느낌이다. 마을을 관통하는 좁은 골목을 들어서니 한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었다. 이 동네가 언제 생겨났느냐고 물었다.

“요 밑에 사는 성식이 할매가 올개(올해) 팔십둘인데 열한 살인가부터 살았다 카던데 그라모…….”



> 골목골목마다 자리를 차지한 빨래

그렇다. 어림잡아 동네가 생겨난 것은 족히 70년은 더 되었을 것이다. 두 사람이 지날 정도의 좁은 골목이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 벽에 널린 빨래가 골목 골바람에 춤을 춘다.

골목을 빠져나와 조금 큰 길로 나오니 집 앞을 텃밭으로 꾸민 집들이 있다.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해서 상추, 배추, 부추, 파 온갖 채소를 다 키운다. 감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무화과나무까지 없는 게 없다.



» 무지개 희망마을 길



» 평온한 오후의 풍경

모든 것이 평온한 풍경이다.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한국현대사에 있었던 아픈 사건의 목격자이기도 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대표적인 인권 유린사건이다. 이 형제복지원이 무지개마을 바로 위쪽에 있었다. 복지원 설립 초기 건축자재를 현재 무지개마을 입구 쪽에 풀어놓으면 수용자들이 내려와 맨몸으로 짊어지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날랐다고 한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은 희미한 기억으로 퇴색되고 있다.



» 무지개 희망마을 골목을 누비는 우편배달부

마을은 워낙 낙후되어 머지않아 재개발 될 것이다. 다만 이 마을 사람들이 사는 동안 마을 이름만큼 희망과 행복의 무지개를 띄우며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재단

060 듣기 |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

064 말하기 | 예술가와 시민의 예술적 연대를 모색하다, 예술기행 프로젝트

068 보기 | 주요행사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

정리.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그래도
사과나무는 심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앞으로도
부산 문화예술계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9년 6월 25일(화) 16:00~18:00
장소 경성대학교 문화골목 2층 부영이 식당
사회자 최윤진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팀장
좌담자 정 면 김해문화재단 PM / 김경화 설치 작가
원향미 금정문화재단 팀장 / 허경미 감만창의문화촌 입주작가
함수경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 김정주 가치예술운동 대표
박민경 타피스트리 작가 / 허석민 극작가
정리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사진 권순일 포토그래퍼



최윤진 올해로 부산문화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걸어온 지난 10년을 성찰하고 새로운 10년을 전망하고자 문화예술계 전문가와 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기 위해 이번 좌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부산문화재단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서로 얘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의 기본으로 돌아가 새로운 10년을 준비할 때



함수경 얼마 전 부처별 예산 현황과 관련된 기사를 인터넷에서 접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의 극히 일부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부산문화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나 그 외 부처와 능동적으로 기획하는 것은 힘들까요? 올해 4월부터 총괄책임으로 치매 예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수영문화원과 수영구 치매센터에서 진행하면서 여러 정부 부처에서 예술교육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각 구마다 치매센터가 생겼고 앞으로 치매문화마을(명칭 미정)이 하반기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속 가능한 예술환경 개선,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지역예술가를 위해 미리 능동적으

로 준비한다면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 부처별 사업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예술가들이 전국 단위의 지원 사업에 차별화된 지역 콘텐츠로 부산 시민을 위한 지원 사업을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하지만 2016년 착한 그물 사업이 이제 맞춤형 실버문화복지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비나 시비의 예산에 따라 다양한 각도에서 예산이 잘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술 강사도 늘고 프로그램의 관리도 잘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현장에서 몇 해 연속적으로 혜택 받으시는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의 경우, 수업이 시시한 탓에 공예에 사용되는 재료 선택까지 요구하시는 만큼 프로그램 심화나 예술가를 위한 역량 강화, 노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큰 타 부처와의 능동적인 기획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방면으로 부산문화예술교육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보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생긴 정책연구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김정주 문화다양성 사업을 하면서 난감했던 게, 저 스스로는 젊게 사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청년들과 제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세대 차이가 나다 보니 청년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한정되더라고요. 그 점을 미루어볼 때 문화다양성 정책위원회 구성도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다양성의 취지에 맞게 전문예술가뿐만 아니라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자문위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경미 한 공간을 같이 쓰는 감만창의문화촌 입주작가로서 재단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만큼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술가들에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석민 저는 부산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분야에 몸담고 계신 분들을 뵈는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또래 청년예술가들하고만 이야기를 해봤지 다양한 이력을 지닌 문화계 종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에도 처음 참석해봤어요. 심지어 부산에는 정극 극단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려와서 보니 엄청 많더라고요. 부산사람인데도 부산의 문화예술계에 대해 몰라도 많이 몰랐던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화 지난 노력이 하나하나 쌓여 재단의 10년이란 시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깊게 파고들면 문제는 많지만 차차 함께 풀어나가면 되겠죠.



정면 재단이 다시 10년을 살아가려면 새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대상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부산 예술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술가들과 어떤 식으로 협업해야 할지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향미 기초문화재단으로서 금정문화재단은 꾸준히 지역문화공간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서로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은 기초문화재단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전체적인 부산지역 문화예술의 방향성을 탄탄하게 설계해주었으면 해요. 10년 동안 다사다난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버텨내고 많은 인연들과 만나왔다는 점에서 재단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싶어요. '그래도 사과나무는 심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앞으로도 부산 문화예술계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진 그동안 부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가치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비전 2030에는 이러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본 기사는 <부산문화재단 10주년 백서 발간 기념 - 이슈 TOP 10 좌담회>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실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술가와 시민의 예술적 연대를 모색하다

예술기행 프로젝트

글. 김민정 부산문화재단 문화공간팀

‘예술기행’은 지역 예술가와 시민이 예술로 소통하는 감만창의문화촌 지역밀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시민을 예술가로 이끌기 위한 여정의 첫 번째 주제는 ‘사진으로 떠나는 예술路’로 예술가와 시민들은 저마다 카메라를 손에 들고 예술기행에 나섰다.

보는 예술에서 하는 예술로

우선 남구 지역 주민들은 감만창의문화촌 입주예술가 최우창 사진가와 함께 카메라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두 차례 워크숍을 통해 50-70대의 주민들이 사진작가에게 직접 사진 촬영을 배웠다. 시민들은 기본 작동법부터 사진 속 주인공을 정하는 구도 등을 배우며 점차 카메라와 친해졌다. 준비를 마친 주민들은 부산 가덕도와 경남 통영으로 출사 투어를 떠났다. 제각기 장소들이 품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은 사진으로 기록되었다.



사진으로 떠나는 예술路

출사는 '다크 투어'와 결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다크 투어란, 비극적 역사나 재난의 현장을 방문해 어두운 과거를 돌아보는 여행이다. 첫 번째로 방문한 가덕도는 근대 일본의 군사적 요충지였던 어두운 과거가 있다. 가덕도에는 지금도 일제의 잔재가 많은 작은 포구마을 외양포와 방어시설로 구축된 인공동굴이 있다. 참가자들은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방치된 역사로 남은 가덕도를 사진으로 기록해나갔다. 뒤이어 참가자들은 경남 통영으로 향했다. 통영은 박경리 소설가의 출생지이자 작가의 장편소설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이 되는 곳이다. 참가자들은 걸출한 문학가들을 배출한 통영의 문학동네 '서피랑'의 모습을 렌즈에 담았다.

여행 기록이 작품이 될 때

지난 여름, 감만창의문화촌 감만사랑방에서는 첫 번째 예술기행의 공유 전시회가 열렸다.(2019. 6. 25.~7. 19.) 참가자들이 찍은 사진을 전시하고 예술기행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도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참가자뿐 아니라 전시를 관람하는 시민들도 예술기행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나이프 아트’는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작품이나 경향을 의미한다. 대상 그대로의 모습을 꾸밈없이 보여주는 예술기행 참가자들의 사진 역시 나이프 아트와 그 결을 같이한다. 참가자들은 사진 예술을 통해 예술적 기교보다는 순수한 미적 즐거움을 펼쳤다.

올해 처음 시작한 예술기행 프로그램은 하반기에도 남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한층 더 가까워지고, 지역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시민이 곧 예술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정숙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역사 현장을 돌아볼 수 있어 유익하고 뜻깊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진은 물론 역사에 대해서도 깊이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예술기행은 저에게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령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법을 배운 후, 밖으로 출사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투어 전날부터 기대가 컸습니다. 직접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전시도 되니 보람있었습니다.

강영숙 사진작가님께 직접 사진을 찍는 구도나 시점에 대해 배우고 카메라를 드니 찍는 대상과 그 순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예술기행을 떠났던 장소들의 경치 그리고 가덕도 외양포를 방문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의 기억을 찍을 수 있었던 점까지 모두 좋았습니다.

참여작가 소개

감만창의문화촌의 입주예술가인 최우창 사진가는 2007년부터 일본 큐슈에 있는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들의 유적지와 조선학교를 기록해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의 작업은 스스로의 민족 정체성을 자이니치(ざい nich, 일본에 있는)라고 말하는 재일조선인의 삶을 기록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부정당하고 있는 자이니치의 역사와 존재를 상기시킨다. 최우창의 사진은 자이니치가 여전히 '거기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들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타자성을 환기하고 있다.

October

10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3	4	5	6
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가 시민문화예술교육 비타민C ~ 11.20.(수) 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가 일대 신규입주자가 단체전 ~ 6.(일) 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가 일대		커뮤니티 비프 ~ 10.(목) 한성1918	원도심또따또가 네트워크 협력행사 커뮤니티 비프 ~ 12.(토) 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가 일대		인문학 강좌 <한일문화살롱> 9.7.(토) ~, 14:00~16:00 매주 토요일/4회 조선통신사 역사관	
	7	8	9	10	11	12
오픈스튜디오 ~ 11.(금) 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가 일대						메이드 인 사상 10:00/14:00 사상인디스테이션
	14	15	16	17	18	19
			2019 청년문화포럼 「청년 BBM」 4회차 19:00 사상인디스테이션		인디 위홀 20:00 사상인디스테이션	2019 청년문화 인력양성 <청년 University> 졸업식 19:00 사상인디스테이션
	21	22	23	24	25	26
			2019 홍티아트센터 입주자가 릴레이 개인전 <Ouma 개인전> ~ 11.6.(수) 평일 9:00~18:00 홍티아트센터		2019 홍티아트센터 오픈스튜디오 ~ 26.(토) 홍티아트센터 감만상상페스티벌 ~ 26.(토) 감만창의문화촌	창의예술교육랩 시범수업 ~27.(일) 국립부산과학관 창의예술교육 주간 ~11.2.(토)
	28	29	30	31	아트북 전시 연계 워크숍 - 한성1918(10월 ~ 11월) 아트북 <On Rainy Days> 전시 - 한성1918 (10월 ~ 12월) 문화가 있는 날 <영화로 통하다> 조선통신사 역사관 (10월 ~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 14:00~ /19:00~	
아시아 문화다양성 포럼 주간 ~ 11.3.(일) 원도심 일대 (중구, 동구)	2019 청년, 예술교육 해커톤 ~ 31.(목) 부산 일원	2019년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부산/울산/경남 17:00 부산대역 문화나눔터 19:00 창원 씨티세븐 10월 사람책 읽어주는 시간 19:00 한성1918	문화다양성 이음영화제 ~ 11.3.(일) 영화의전당			

* 행사 일정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November

11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3
		<p>다이드게 월드컵 ~ 4.(월) 일본 시즈오카</p> <p>2019 창의예술교육 국제 심포지엄 부산 일원</p> <p>2019년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부산/울산/경남 17:00 부산 초량 정란각</p>			<p>2019년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부산/울산/경남 15:00 울산 삼산동 디자인거리 15:00 부산 시민공원</p> <p>세토우치 행사 ~ 4.(월) 일본 세토우치</p>	
4	5	6	7	8	9	10
	<p>문화예술 행정 아카데미 10:00 ~ 17:00 감만창의문화촌 및 부산 일원</p>			<p>카와고에 축제 ~ 11(월) 일본 카와고에</p>		<p>메이드 인 사상 10:00/14:00 사상인디스테이션</p>
11	12	13	14	15	16	17
		<p>2019 청년문화포럼 「청년 BBM」 5회차 19:00 사상인디스테이션</p> <p>2019 홍티아트센터 입주작가 릴레이 개인전 <이장욱 개인전> ~ 27(수) 평일 9:00 ~ 18:00 홍티아트센터</p>				
18	19	20	21	22	23	24
				<p>시모노세키 축제 ~ 25(월) 일본 시모노세키</p> <p>인디 워 홀 20:00 사상인디스테이션</p>	<p>연고지대회 ~ 25(월) 일본 나가하마</p>	<p>메이드 인 사상 10:00/14:00 사상인디스테이션</p>
25	26	27	28	29	30	
		<p>11월 사람책 읽어주는 시간 19:00 한성1918</p>				

* 행사 일정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December

12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겨울영화제 ~31(화) 10:00~14:00 조선통신사 역사관
2	3	4	5	6	7	8
9	10	2019 청년문화포럼 「청년 BBM」 6회차 19:00 사상인디스테이션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행사 일정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부산문화의 모~든 소식 여기 다 있네!

#부산문화재단 SNS와 친구를 맺어야 할 이유

언제 어디서든
부산문화재단의
소식을 받을 수 있다.

부산문화재단과
실시간으로 1:1상담이
가능하다.



f 좋아요



blog 이웃신청



YouTube <컬쳐Tube>
구독 신청



Instagram 팔로우



TALK 옐로아이디
친구 추가



문화동행 10년,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계간지 「공감 그리고」 주요 배포처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배포를 희망하시는 문화공간이나 단체는 부산문화재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745-7224)

감만창의문화촌/조선통신사역사관/CATs 사상인디스테이션/홍티아트센터/F1963/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도시철도 북 하우스(시청역, 중앙역, 연산역, 온천장역, 수정역)/부산관광안내소(노포동, 부산역, 김해공항)/부산시립시민도서관/부산시 중앙도서관/부산국립국악원/부산시립미술관/부산시민회관/부산문화회관/울속도문화회관/금정문화회관/동래문화회관/영도문화예술회관/해운대문화회관/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상상공간 아르케/모퉁이극장/부산지역 작은도서관/민주공원 등

부산문화재단 후원회원 모집

여러분을 부산의 문화예술인으로 모십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분! 산소처럼 부산문화재단과 늘 함께하고 싶은 분!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취려함보다는 꾸준한 관심으로 재단과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하나 되어 단단한 후원을 쌓아가는 당신이야말로 부산의 문화예술인입니다.



- 세제 혜택(연말정산 등)
- 재단 기념품 증정
- 재단 발간도서 발송(공감 그리고, 연차보고서 등)
-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시민평가단 우선순위 배정



- 일반회원 : 매월 1만 원 정액 납부
- 연간회원 : 매년 20~50만 원 정액 납부
- 평생회원 : 500만 원 이상 일시불 납부
- 단체회원 :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 원 이상을 일시불로 납부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bscf.or.kr ▶ 알림마당 ▶ 후원회원 모집 ▶ 후원회원 가입 신청하러 가기
- 문의전화 : 부산문화재단 재정관리팀(051-745-7252)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 구·군 문화회관(해운대, 을숙도, 금정, 동래, 영도), 부산시민회관, 감만창의문화촌, 조선통신사역사관, 사상인디스테이션, 흥티아트센터, 도시철도 북 하우스, 또따또가 운영센터, 영화의전당, 부산 시립미술관, 영광도서관, 부산지역 관광안내소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포처 문의 : T. 051-745-7224 E-mail. bscf@bscf.or.kr



〈길 없는 숲〉(2018)
· 신대준 작가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4 7707 F. 051 744 7708 ~ 9
www.bscf.or.kr



9 772586 107008
ISSN 2586-1077